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 다함께
· 성시	· 시편 103편 1-2절
· 찬송	· 301장(통일 460장)
·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 신명기 16장 13-17절
· 메시지	·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 찬송	· 559장(통일 305장)
· 주기도	· 다함께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3-17절>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인 초막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켰다(15절). '여호와 앞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곡물을 주신 여호와를 '온전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다. 한 해의 소출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2.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였다(14절).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족들 중에 외롭게 있는 이들과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3.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켰다(13절). 명절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였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화>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성경통독사경회

9월22일(수) 오후1시 ~ 오후5시 / 23일(목) 오전8시 ~ 오후5시

-범위 : 창세기 ~ 사사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9월22일(수) 오후1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3일(목) 오후5시 사사기 21장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통독범위는 구약 성경(창세기 ~ 사사기)이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매 교시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하고, 낭독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아멘"이라고 외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회비는 1만원(식비, 간식비)으로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9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김하중 집사(5교구)
- <5독> 김경숙5 집사(13교구) 김종자 권사(14교구)
- <3독> 문금희 집사(13교구)
- <2독> 조순엽 권사(1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강영순 권사(6교구) 김대호 장로(8교구) 박인규 장로(11교구) 송인택 성도(14교구)
- <1독> 박상희 집사(1교구) 우종암 집사(3교구) 임윤자 권사(8교구) 채덕희 권사(8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국산옥 권사(11교구) 육순자 권사(11교구) 최근자 권사(12교구) 최향봉 권사(13교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중추절(仲秋節)

형편이 어려운 성도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구제헌금 전달

우리교회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각 교구담당 목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구제

헌금(51명)을 전달하였고, 장애인 관련 기관(나사로의 집, 주몽재활원) 2곳에도 구제헌금을 전달하였다.

2010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월1일(월) - 11월27일(토) 새벽5시

강사 이종윤 목사,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

2010년 사명자 대회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주제로 10월10일(주)부터 11월28일(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씩 전도하는 태신자 작정, 주일을 제외한 11월1일(월)부터 27일(토)까지 24일간 이종윤 목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하는 특별새벽기도회,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열열이 기도하는 다니엘기도, 성경암송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잃은 양을 찾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세계 복음화, 교회 전국화, 문화 기독교회를 이루어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1교단 다체제를 통한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불신과 갈등, 분쟁으로 고통하는 교회와 사회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 혼돈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제목>

1.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치 못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학교 38기 수료

전도학교 38기가 지난 6월9일 개강하여 12주간의 훈련을 마쳤다. 38기는 피택 안수집사·권사 전도훈련과정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훈련을 진행하였다. 38기 수료자는 44명이고, 38기까지 총 1,045명이 전도학교 훈련을 이수하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택근 고영숙 권혁만 김광철 김도훈 김수원 김용환 김인실 김정호 남정열 류기정 박경정 박병욱 박정인 박종숙 박충구 서상근 송재현 안선광 안재선 안현식 양지훈 오규자 오민재 윤석원 이경희 이길재 이명아 이은자 이은희 이인보



호산나대학 국토포대장정 은혜중에 마치다

한 장로교단 속의 다체제에 대한 신학적 전거<3>

순례자는 지난 7월 10일 제2회 장로교의 날에 제안한 '장로교 한 교단 다체제(多體制) 제도'에 대해 이종윤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회장)가 한국기독교보에 특별기고한 것(계속 연재 중)을 발췌한다. <편집자주>

라. 현 한국장로교의 교단의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차이를 인정하면서 '교단 다체제'를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국장로교회의 각 교파 교우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미 한국장로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한 교단'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국장로교회의 어느 교파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는 말씀을 부인하겠는가? 한국장로교회의 모든 교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는다면, 그들은 이미 '한 교단'을 이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지 않는 교파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떡과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각 교파마다 서로 다른 신학적 해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교파의 예배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성만찬을

"저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라고 어느 교파도 단정할 수 없으며, 타 교파에서 이적해 온 교우에게 성만찬을 분배하지 않는 교파도 없다. 한국장로교회의 모든 교파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 말씀'(마 26:26-28)과 '사도 바울의 말씀'(고전 10:16-17)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한국장로교회는 성만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에 참여하는 '한 교단'이 아닌가?

끝으로 교회사 및 교리사적으로 '교단'은 '신앙고백서'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국장로교회의 각 교단은 모두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의 신앙고백서로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장로교회의 모든 교파는 이미 '한 장로교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음호 계속)

목사이종윤 · 박사 이종윤 - 목회자의 길 9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다

언젠가 오주경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서 사귀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연상 작용까지 하게 되었다. 홍준만 목사의 조카는 서울대 사범대학 생물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졸업반에서 논문을 작성 중에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는 이였다.



산혼여행중에 바다를 즐긴다 - 이종윤 목사와 홍순복 사모

오랫동안 이종윤은 홍순복과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함께 했다. 홍순복은 5학년, 이종윤은 6학년 담임으로 이종윤은 홍순복이 교복 입을 뒷모습은 자주 보았지만 얼굴은 별로 본 기억이 없었다. 교회는 홍순복을 중등부 교사로 발령하여 당시 토요일마다 이종윤의 열심히 쓰는 설교아닌 설교를 홍순복은 뒤에 앉아 열심히 받아 적는 신실한 모범교사로 기억이 날 뿐이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던 중 이종윤이 과로로 몸살을 앓고 누웠었다. 교사회 의 서기인 홍순복 선생이 이종윤 전도사 집을 방문하고 교사회 의 보고를 했다. 이종윤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 홍순

복 선생은 책상 위에 있는 연세신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D.D. Williams의 '치유와 구원'이라는 논문을 이종윤이 번역한 것이 연세 학술지에 실린 것이다. 보고를 마친 후 돌아갈 때 그 책을 마저 읽고 싶

다하여 빌려 주었다. 두 주 후에 빌려간 책을 돌려 받은 이종윤은 참으로 놀랐다. 그 논문의 각주에 있는 독일어 참고 문헌 중 스펠링의 오자를 빨간 볼펜으로 수정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종윤은 내 배우자를 택한다면 내가 택하지, 남이 정해준 사람 수준은 아니라 생각하면서 만일 결혼 대상을 선택한다면 먼저 목사의 부인이 될 만한 신앙인, 학자의 부인으로 자격을 갖춘 학문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은 있었다. 그날 이후 이종윤의 눈에 홍순복 선생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다 했으니 1967년 5월23일 이종윤은 홍순복과 김창인 목사 주례하에 결혼을 한다.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했지만 신부와 택시 타고 테이트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함을 메고 친구들이 신부집을 갔다 늦은 시간에 밖에서 기다리던 이종윤과 만나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

기사가 방향이 아닌 남산으로 올라간다. "기사 아 저서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했더니 후시 "금화에 계신 적이 있으셨나요?" 알고 보니 금화 중등학원 학생이었다. 이종윤 선생님을 찾아 그때 재배한 감자를 드리려고 택시기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때 안 일이지만 그 학교 졸업생 중 신학생이 둘이나 배출되었다.

이종윤은 대학원 졸업 후 다시 유학을 떠나려 했으나 김창인 목사의 제안으로 다시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한다. 연세대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총회 규정으로는 1년만 수학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대로 이종윤은 그의 친구 신성종과 함께 총신대1학년으로 입학하여 졸업을 두 달 앞두고 유학의 길을 떠난다.

(다음 호 계속)

성경통독사경회를 기다리며



성경통독사경회로 추석을 맞이할 때면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이 없던 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제사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길을 걸어온 어리석은 모습과 함께 성경통독사경회로 받은 은혜가 한없이 고백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은 그저 오래되고 낡은 신화 같은 얘기로 여기어왔는데 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하여 더 없이 값지고 소중한 진리의 맥이 켜켜이 묻혀있음을 어렵풋이나마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예배 시 선포하시는 말씀의 구절 구절을 통하여 단순한 활자 위인 낱말의 겉 모습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와 소망의 복음으로 하나하나 닦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간 문을 활짝 열어 산과 들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오곡백과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와 감사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도 활짝 열고 성경통독사경회로 달려 나아가 영혼의 양식인 빛과 소망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3사단 진중 세례식 및 성찬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최임수 집사 (3교구, 비전2020 기획담당)

할렐루야!

먼저 우리 서울교회 후원으로 지난 9월11일(토)에 23사단 진중 세례식 및 성찬식을 동해안 등대교회에서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비전2020위원장 이갑진 장로를 비롯한 36명 참가 예정인원 전원이 참가하여 오전7시 30분에 출발하여 12시20분 푸른 동해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등대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병사들은 질서 정연하게 입장하여 경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세례자 24명과 일반성도 1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는 2층까지 찢차고 넘쳤습니다.

의자가 부족해서 일부는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 중창단의 찬사 같은 찬양에 이

어 박노철 목사님의 "세례의 의미"란 설교 말씀이 있었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우리교회는 세례자에게 십자가목걸이와 일용필수품을, 참석한 신우들에게는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날 세례 받은 병사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비가 오고 곳은 날씨임에도 함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비전 2020 운동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의하나님

바로 내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지동 집사(1교구, 말라위 선교 의료팀)

아직도 선교지에서의 감동이 생생합니다. 말라위 선교를 다녀온 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언제나처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늘 마음이 벅칩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 물을 마시기 위해 맨발로 줄을 서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오랜 비행시간으로 인한 피곤도 잊은 채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 선교팀은 이미용 봉사에 마을에 콩심기, 교실의 환경미화로 눈코 뜰새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일정은 재소자들과 함께 드리는 새벽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은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며 각종 피부병과 곰팡이균에 시달리고 있었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생각해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양말은 커녕 신발도 신지 못했고, 엄마의 젖을 띠게 되면 하루 한 끼 옥수수죽으로 살



아가면서도 순수한 눈망울로 선교팀이 가져간 말씀 카드를 읽고, 열심으로 찬양을 따라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약 2천명의 흥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치치리 교도소에 갔습니다.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워십 댄스와 찬양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혹시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먼저 이미용과 진료를 받으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폭동까지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열악한 환경, 턱없이 부족한 약품과 일손으로 인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후에 이들이 약을 먹을 줄 몰라 봉지채 삼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빨리 발견하시긴 했지만 약 먹는 법까지 알려주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순종하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 찬양은 소프라노 김정아 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솔로이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김정아 성도는 영국의 트리니티(Trinity)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 캐나다 밴쿠버 아카데미 음악원에서 오페라전공으로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고, 캐나다의 밴쿠버를 중심으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을 하다 귀국하였다. 오늘은 '알렐루야 (Wolfgang A. Mozart)',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F.M. Leman) 등 세곡을 박스기 성도(고등부찬양대 반주자)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며 나아갈 때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외로움과 수줍음이 심해 누구 앞에 나서기를 힘들어했던 나는 이번 선교를 통해 내게 감사할 것과 나누어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과 바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교회의 말라위 선교팀에 동참케 하시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소심한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을 다시 한 번 결심해 봅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토)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 족구대회 개최예배 설교한다.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9.19) 빌립선교회(9.26)

■ 금주의 식사 : 조영식 장로 김영식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권준혁 성도 김현정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강남노회 남선교회 족구대회

다시 한번 우승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창 집사(14교구, 족구선교회 회장)



매년 개최되는 강남노회 족구대회가 올해 서울교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필그림 족구선교팀으로 시작된 저희들이 4번의 우승(3년 연속우승 포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교회 족구팀의 Top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비바람과 눈보라속에서 7년이란 긴 세월을 유지하며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인내하며 달려왔습니다. 3회 연속 우승으로 아가페타운 건립 건축현금을 교회에 봉헌할 때 작은액수지만 아무도 해보지 못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

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승기를 흔드실 때의 그 광경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9월25일 토요일 오후1시 대치동 대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소망교회/묘동교회등 강남노회 총 87개 교회중 12개 교회가 각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열리게 됩니다. 서울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승을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종윤 목사님께 또 한번의 우승선물과 교수들의 강건하고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족구 선교팀은 선교와 전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교회성장의 초석이 되고자 날마다 서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사 대회를 위해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교회외시는 길

